투데이 칼럼

남북평화 기원의 노래

정 복 규
논설위원

미국의 헤비메탈 밴드 스틸하트의 'She's gone'은 유명한 노래다. 실제로 남성들의 노래방 애창곡이기도 하다. 그러나 3옥타브 폭발적인 고음으로 따라 부르기가 쉽지 않다.

이 노래를 부른 밀젠코 마티예비치가 특별한 곡을 발표했다. 'Trust in Love'라는 제목의 노래다. 남북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한국어로 부른 노래다.

밀젠코는 한복을 입고 뮤직비디오까지 찍었다. 이 뮤직비디오는 LA한국문화원의 도움을 받아 제작됐다. 그는 한복을 입고 한국의 멋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당초 이 노래는 미국 땅에서 울려 퍼진 남북 평화의 멜로디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터넷에 눈길을 끄는 뮤직비디오 한 편이 공개됐다. 뮤지비디오에서 중후한 멋을 뽐내는 외국 남성이 한복을 입고 등장한다.

그는 한국 전통 무용수들 틈에서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 가사는 "우리는 운명의 손에 달려 있다 숨 쉬도록 도와줘. 그래서 내가 될 수 있게." 로 이어진다. 이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은 바로 'She's gone'으로 유명한 밴드 스틸하트의 밀젠코 마티예비치이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며 'Trust in Love'라는 신곡을 발매했다.

그는 남북이 대립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이 노래를 만들게 됐다고 한다. 밀젠코 마티예비치 가수는 "제가 이 노래를 쓸 때는 통일에 집중했어요. 유산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단지 그 반짝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남한과 북한 사람들 모두에게요. 통합을 이루는 거죠."라고 말했다.

밀젠코씨는 1992년 공연장 조명이 떨어져 큰 부상을 입고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다. 하지만 한국 공연 때 관객들이 자신의 대표곡인 She's gone을 따라 부르는 모습에 감동해 슬럼프를 극복했다.

밀젠코 씨는 한국에서 열린 각종 록 페스티벌과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면서 한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줬다. 한편 1989년부터 She's gone은 한국에서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지금도 노래방 애창곡이다. 밀젠코 씨는 '그래서 더욱 기쁘고 영광' 이라고 말한다. 한국에 가서 살기도 했고 그곳에 친구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밀젠코 씨는 노래로 남북 평화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연습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풍성한 사운드를 위해 오케스트라와 협업을 진행했다. 특히 고(故) 신해철 씨와 함께 활동하던 기타리스트 김세황 씨가 'Trust in Love' 음원 작업에 참여해 힘을 실어주었다.

밀젠코의 Trust in Love는 영어와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공개될 예정이다. 그리고 뮤직비디오에 한국의 멋을 담아내기 위해서 LA한국문화원이 많은 지원을 했다.

'Trust in Love'의 뮤직비디오는 실제로 미국 LA에 있는 우정의 종각에서 촬영했다. 우정의 종은 미국 독립 200주년을 맞아 1976년 한국이 미국에 선물했다.

LA한국문화원장을 지낸 박위진 씨는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밀젠코 씨와 함께 우정의 종을 타종했다. 밀젠코는 처음 뮤직비디오 촬영 제안을 받았을 때 한국적인 모습을 알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박 전 원장은 촬영 내내 남북 평화를 바라는 밀젠코 씨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밀젠코에게 한복을 선물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감사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밀젠코는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자신의 노래가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세계평화를 열쇠를 쥐고 있다. 한국이 하나가 되면 나머지는 그 뒤를 따를 것' 이라고 말한다.

남북 평화를 위한 노래는 이역만리 미국에서 울려 퍼졌다. 밀젠코의 바램처럼 평화의 훈풍이 한반도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

사 설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의 과제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전라북도 시 군 임원단 교육이 최근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통일회관에서 있었다. 이날 교육은 '국민의 힘 모아 신통일 한국 시대를 열자' 라는 주제로 열렸다.

송광석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중앙회장은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한 우방국들의 경계심과 대응 방안 등을 직시하면서, 튼튼한 국방력과 동맹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은 1968년 통일교 고(故) 문선명 총재가 창설한 '국제승공연합'의 뒤를 이어 지난 70~80년대 통일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특히 통일을 준비한다는 사명감으로 북한의 복지 및 국민들의 통일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전신인 국제승공연합은 1968년 문선명 총재가 창립한 사회단체다. 당시 남북 관계의 냉각 속에서 통일 운동의 일환으로 공산주의 체제 및 이론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비판했다.

국제승공연합은 국민들의 반공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활동에 매진했다. 국제승공연합이 창립될 당시 남북 관계는 '김신조 사건'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무력 도발 이 절정기였다.

문선명 총재는 '공산주의를 철저히 막기 위한 이론을 갖춰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래서 경기도 구리시 수택리에 500명 인원 수용이 가능한 중앙연수원을 개설했다.

개설 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박3일간의 승공 강연과 연수 교육을 통해 반공 사상을 고취시켰다. 70년대 남북 관계의 냉각은 1972년 박정희 정권이 북한과 '7·4 남북공동성명'에 합의하면서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시대 변화를 예측한 문선명 총재는 남북 관계의 화해 속에 "더 이상 물리적 위기는 없다. 새로운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자"며 1987년 5월 15일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을 창설했다.

무주택 청년 반값 임대료

전주시가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 19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급 형태는 중노송동, 효자동, 금암동 중 1인 단독거주형 16호, 3인 공동거주형 1호 등 2가지다.

입주 자격은 만19~39세 청년 또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등은 1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2인 532만원, 3인 641만원)이하다. 3순위는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385만원)이하다.

학업과 취업 준비 등 이사가 잦은 청년 주거 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은 구비돼 있다. 입주 대상자는 5월 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선정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기준을 모두 갖춰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은 약 15만 2000명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의 집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기 바란다.

독자제언

이면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양보와 배려를

보행자 통행우선권을 들어 보셨나요?

차도나 인도 그리고 중앙선 구분이 없는 도로 폭 9미터 미만 이면도로(생활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게 된다.

보행자 개념도 유모차, 전동휠체어에서 노약자용 보행기, 무동력 어린이용 놀이기구, 손수레 등 기구장치까지 보행자 범위가 확대됐다.

지난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이면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은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보행권 보장은 물론 매년 40%에 육박하는 높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기존에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길 가장자리로 통행 하였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차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하지 않으면서 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면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도로에서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보행자에게 통행을 방해했다면 도로교통법 제8조 보행자통행방법이나 보행자의 보호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면, 보행자는 차량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한다.

보행자 통행우선권 부여로 운전자 입장에서는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운전자들은 이면도로를 떠나 보행자의 통행 안전이 우선이라는 인식 개선과 보행자도 운전자 입장을 헤아려 상대에게 양보와 배려를 먼저 생각한다면 서로가 상생하는 교통문화 정착은 그만큼 빨리 다가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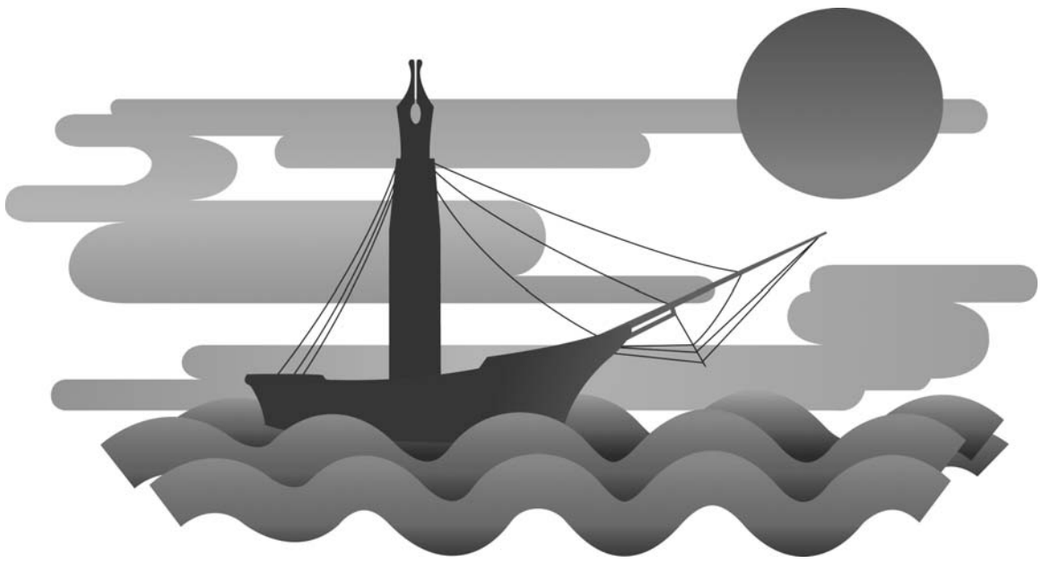
양은욱 순창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스페인-덴마크 총리와 기자회견하는 젤렌스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국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